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 인격장애 유형과 대처법

배 재 호 / 아이두정신건강의학과의원

병원은 하나의 자영업이자 서비스업이다. 병원의 의료진과 직원들은 다양한 환자 및 보호자와 소통해야 하며 감정노동에 시달린다. 감정노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심리사회적 건강을 악화시킨다. 특정한 인격 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의료진과 직원의 감정노동을 쉽게 유발하고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병원 내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환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인격 장애 중 의료 환경에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유형(경계선 인격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연극성 인격장애 등)의 특성과 그에 따른 대처법을 말한다.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는 의료진에 대한 이상화와 평가절하를 반복하며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반응을 보인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환자는 의료진을 조종하려 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극성 인격장애 환자는 과장된 감정 표현과 관심을 끌려는 행동으로 병원의 운영과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기도 한다.

의료진이 인격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 유형에 적절한 의사소통 전략과 경계 설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번아웃을 예방하고, 환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보다 효과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의료진이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법을 제시한다.

학력 및 경력

-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료
- * 청량리정신병원 과장
- * 동아일보 <만화그리는의사들> 연재
- * 메디게이트 <만화로보는의료제도> 연재
- * 현, 아이두정신건강의학과 대표원장